

오늘의 유머

▲내가 먼저
한·중·일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과학자가 땅 속 100m 지점에서 1천 년 전에 깔린 구리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한국과 일본의 과학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자 중국 과학자가 아무렇지 않는 듯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의 대답
10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할아버지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판사와 피고
판사가 피고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면서 크게 꾸짖었다.
“피고 도대체 이곳에 온 게 몇 번째입니까?”

“하지만 관사님도 죄를 짓는 우리들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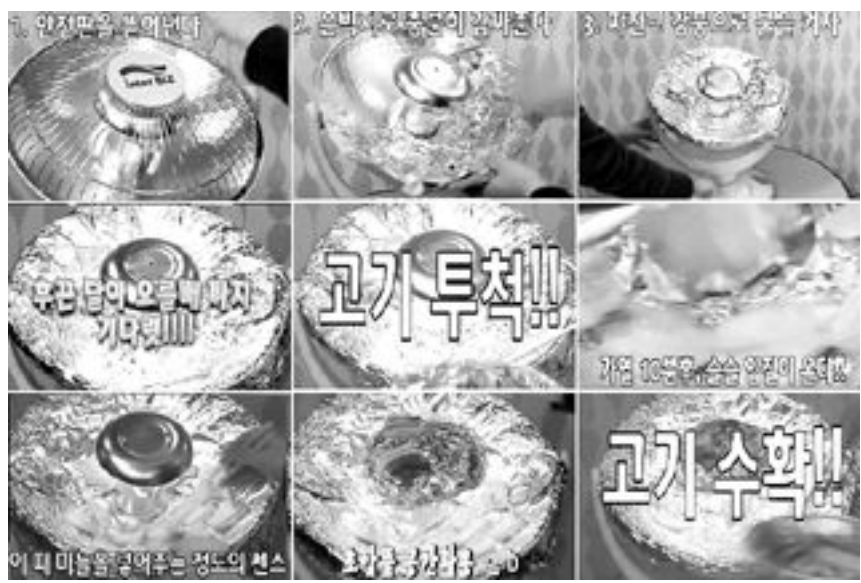
▲웃음소리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는지 아니? 허허허(her her her) 하고 웃어.”

▲이혼의 이유
판사에 앞에 선 여자가 말했다.
“저 사립학교는 이제 더 이상 못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자 여자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지난주 수리공이 우리 집에 다녀 갔는데 그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죠.”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물었다.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하는 거냐?”

시끌벅적 e-스타



그냥 도전, 열풍기로 삼겹살 구워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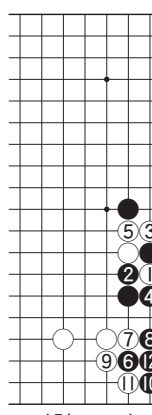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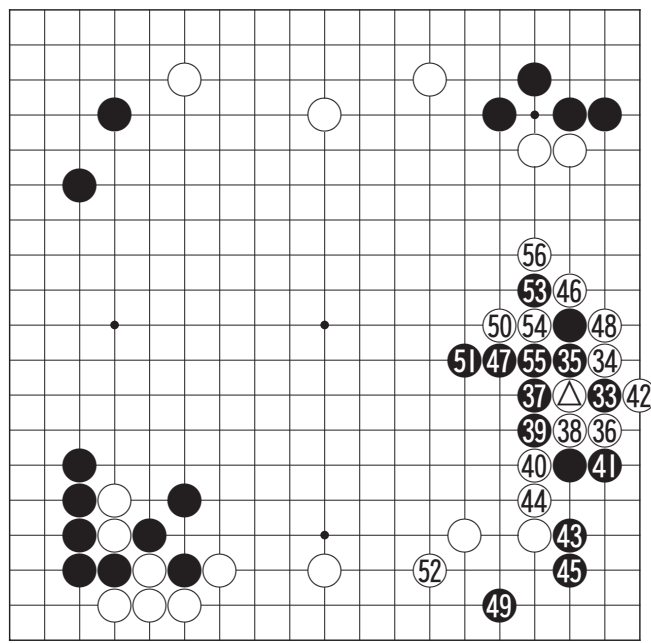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도전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빼놓는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본 딴 '그냥 도전'이라는 동영상에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세심하게 덮어준다. 이 작업이 끝나고 불을 켜면 색다른 불판이 완성된다.
열풍기가 후끈 달아 오르면 고기 투척이 시작된다. 한점 한점 은박지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익기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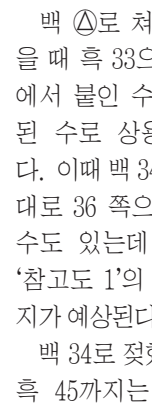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코블임의 묘착

학생부 결승전 3보 (33~56)
白 이대권 黑 양승하 (인천광역시) (경기도)



<참고도1>



<참고도2>

백 △로 쳐들어 왔을 때 흑 33으로 아래에서 불인 수가 준비된 수로 상용수법이 다. 이때 백 34로는 반대로 36 쪽으로 잘못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참고도 1'의 흑 12까지 예상된다.

백 34로 잘못으므로 흑 45까지는 필연의 수순인데 이대권군은 여기에서 백 46으로 코블임은 묘착을 터뜨린다. 양승하군은 장고 끝에 눈물을 머금고 흑 47로 후퇴하고 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23일 甲子)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20th of November,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couple and contact information.

A large table containing language learning materials for English, Korean, and Chinese, including grammar exercises and vocabulary lists.